

##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 비교\*

조경진\*\*      최정수\*\*\*      박수경\*\*\*\*      안선희\*\*\*\*\*

### Comparison of School Readiness between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and Children in Non-low-income Families

Cho, Kyung Jin      Choi, Jung Su      Park, Su Kyung      Ahn, Sun Hee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에 학교준비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가정 아동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 참여 유무에 따라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4세, 만 5세 아동 184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준비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검증,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 수준이 저소득가정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가정 아동 중에서 드림스타트 참여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취학 전 아동이 학교준비도를 잘 갖추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주제어 : 저소득가정 아동, 학교준비도, 드림스타트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 제1저자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 공동저자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전공 석사수료  
\*\*\*\* 공동저자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shahn@khu.ac.kr

## I. 서론

발달과정에서 아동기에 겪는 가장 큰 변화는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들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은 아동의 관심과 자발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아동이 보다 획일화된 시간표와 구조화된 교과과정에 따라 학습활동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단체생활에 적응을 하게 된다(임정진, 김유정, 조수원, 안선희, 2012).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아동은 학교적응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과업을 맞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 초등생을 자녀로 둔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제, 2013).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이다(Duncan, Dowsett, Claessens, Magnuson, Huston, & Klebanov, 2007).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잘 적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후에 이어지는 학교생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아동은 구조화된 교과과정 틀 안에서 기대하는 수준만큼 학습을 수행하기 어려워 학업성취에서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다시 말해,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학하게 된 아동은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이후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는 경향이 높다(박연정, 2007; 석지연, 2012; 정현영, 2006; Bowman, 2006; Duncan et al, 2007; McLanahan, 2005). 그리고 학령기 초기에 부적응 문제를 갖은 아동은 중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할 수 있는데(이경아, 이정운, 2007; 정현희, 2003), 이는 결국 학업중단 및 정서장애 유발과 함께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와 사회적응장애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박승희, 이형초, 이정운, 2007). 즉, 취학 초기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이후 성인으로서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입학초기의 성공적인 적응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업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박연정, 정옥분, 2010; 석지연, 2012; 임정진 등, 2012; Duncan et al, 2007). 그러므로 학교 준비는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는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준비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학교 초기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학교준비도는 아동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여러 변인 중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육/교육비를 지원받는 저소득가정 유아가 중산층 유아보다 학교준비도가 낮았다(임정진 등, 2012). 또한 가족보조금을 받는 아동과 보조금을 받지 않는 아동을 비교한 연구결과, 가족보조금을 받는 아동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아동보다 인지, 신체발달, 그리고 언어구사능력에 있어서 높은 위험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Winsler, Tran, Hartman, Madigan, Manfra, & Bleiker,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저소득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후 초기 적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학 전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에서부터 저소득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에 있어 주된 요인은 저소득가정 부모 대부분이 아동을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투자할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 생계를 위한 맞벌이와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노동과 같은 불안정한 직장 환경으로 인해 아동은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및 양육,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정서적 상태, 스트레스와 갈등이 자녀에게 지지적이지 못한 행동을 증대시킴에 따라 부정적인 양육을 초래한다(김진이, 2009; Spencer, Kalil, Larson, Spieker, & Gilchrist, 2002).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결핍 상태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롯하여 가정환경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저소득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선천적인 정신 병리적 문제, 후천적인 정서 및 행동 문제, 학습 장애,品行 장애 등이 약 5~20%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한다(김경희, 황혜정, 1998). 즉,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가정의 경우, 가정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모들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방소영, 최선희, 이수현, 황혜정, 2013). 이처럼 저소득층 가정환경은 아동에게 발달지연 및 심각한 발달장애 등 다양한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여 아동에게 악순환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렇듯 저소득층 가정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가정이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가 그 가정을 도와 기본적인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동이 그 안에서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찍이 선진국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정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은 빈곤아동 지원 사업으로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호주의 Best Start라는 명칭으로 빈곤 아동이 공정한 교육, 복지

의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쏟아왔다. 200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James J Heckman은 빈곤층 아동에 대한 조기지원은 다른 사회정책 수단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기에 “영유아기 때 투자한 1달러는 아동이 성장한 후 16달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투자 회수율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중부일보, 2012). 이러한 취지하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정부주도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그들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보다 나은 양육여건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각 아동의 실제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전문화된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분야의 포괄적, 체계적,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공나원, 2011; 김극명, 2011; 이순옥, 2010).

그리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혜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연구(Graces, Thomas, & Currie, 2002)에 따르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받은 아동은 받지 않은 다른 통제 집단의 아동에 비해 인지, 언어, 사회·정서발달 측면에서 우세하고 IQ, 학업성적이 높으며, 고교 졸업률, 대학입학률, 소득 등의 측면에서 우월하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아동의 통합서비스 체계에 관한 임병철(2009)의 연구에 의하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학교 성적이 59%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조기에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취약하게 나타나는 인지, 언어 및 이후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도를 보일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Pyatskowitz, 2009).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가정 아동 중에도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과 참여하지 않은 아동 간에도 학교준비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주로 이용 아동의 만족도(공나원, 2011)와 부모 만족(이순옥, 2010)을 다루거나,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김극명, 2010)와 드림스타트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김선화, 2010) 등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측면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드림스타트 참여유무에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 중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과 드림스타트 비참여 저소득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과는 학교준비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 변인 외에 아동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서도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아동의 연령에 따른 학교준비도를 살펴본 정계숙(1986)과 최지현, 박혜원(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

습준비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McBryde, Ziviani 그리고 Cuskelly(2004)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학습준비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의 학교준비도에서 성차를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박연정(2007)과 석지연(2010)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 보다 높은 학교준비도를 나타내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성별간의 차이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 보다 높은 학교 준비도를 나타냈다(Arya, Adam,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와 달리, 조성연(2002)과 최지현, 박혜원(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준비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연령, 성별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준비도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고려해볼 때,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취학 전 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학교적응의 성공여부를 예측해 줄 수 있는 학교준비도가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앞둔 만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과 드림스타트 비참여 저소득가정 아동 그리고 일반가정 아동으로 구분하여 학교준비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취학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취학 전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학교준비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드림스타트 참여 저소득가정 아동과 비참여 저소득가정 아동 그리고 일반가정 아동 간에 학교준비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 아동 184명으로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다. 본 연구에서의 저소득가정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저소득가정 아동은 교육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에 주 1회 참여하는 아동 63명과 드림스타트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41명이 포함되었다. 일

반가정 아동은 총 80명으로, 만 4세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의 아동이고, 만 5세 아동은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보육료의 차액금만을 내는 아동이다.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은 수도권 지역의 드림스타트 4개 기관에서 표집되었으며, 드림스타트에 참여하지 않은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은 드림스타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17개 기관에서 표집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아동의 연령 구성은 만 4세 84명(45.7%), 만 5세 100명(54.3%)이었으며 이 중 남아가 90명(48.9%), 여아가 94명(51.1%)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84)

	일반가정 아동 (n=80)		저소득가정 아동(n=104)			
			드림스타트 참여 (n=63)		드림스타트 비참여 (n=41)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만 4세	20	27	8	6	10	13
만 5세	23	10	19	30	10	8
합계	43	37	27	36	20	21

## 2. 연구도구

취학 전 만 4, 5세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연정(2007)의 학교준비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준비도 척도는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교라는 단체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인 단체생활태도(6문항), 사회·정서적 발달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정서교류능력(13문항), 초등학교 입학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일반적 지식인 일상생활지식(9문항), 소근육 운동 및 언어, 학습활동에 관한 학습활동능력(8문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묻는 각 문항에 대해 담임교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리커트식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준비도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학교준비도 전체는 .95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단체생활태도 .84, 정서교류능

력 .89, 일상생활지식 .91, 학습활동능력 .89로 나타났다. 참고로 박연정(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95이며, 하위영역별로는 단체생활태도 .84, 정서교류능력 .91, 일상생활지식 .90, 학습활동능력 .89이었다.

### 3.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가정 아동과 저소득가정 아동 중에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과 비참여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의 표집은 드림스타트 센터와 어린이 집을 임의로 선정한 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협조가 가능한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학교준비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학교준비도 도구는 현재 아동의 발달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 4~5세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센터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한달 보름정도가 소요되었다.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총 195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4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과 드림스타트 비참여 저소득가정 아동 그리고 일반가정 아동 집단 간의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학교준비도 경향

아동의 전체적인 학교준비도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교준비도의 전체 평균은 3.20이며 하위영역별로는 일상생활지식( $M=3.45$ ,  $SD=.43$ )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활동능력( $M=3.24$ ,  $SD=.52$ ), 단체생활태도 ( $M=3.09$ ,  $SD=.50$ ), 정서교류능력( $M=3.06$ ,  $SD=.42$ )의 순으로 낮았다.

<표 2> 아동의 학교준비도 경향 (N=184)

학교준비도	M(SD)	최소값	최대값
단체생활태도	3.09(.50)	1.50	4.00
정서교류능력	3.06(.42)	1.54	4.00
일상생활지식	3.45(.43)	2.00	4.00
학습활동능력	3.24(.52)	1.88	4.00
전체	3.20(.38)	2.11	4.00

#### 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학교준비도 전체 ( $F=4.09$ ,  $p<.05$ )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습활동능력에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9.03$ ,  $p<.01$ )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6.86$ ,  $p<.001$ ).

<표 3>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N=184)

		만 4세 (n=84)	만 5세 (n=100)	전체 (n=184)
		M(SD)	M(SD)	M(SD)
단체생활태도	남	3.06(.44)	3.14(.52)	3.10(.49)



	여	3.11(.47)	3.06(.57)	3.08(.52)
	전체	3.09(.45)	3.10(.54)	3.09(.50)
정서교류능력	남	2.99(.29)	3.12(.45)	3.06(.39)
	여	3.07(.42)	3.04(.47)	3.05(.45)
	전체	3.03(.37)	3.08(.46)	3.06(.42)
일상생활지식	남	3.38(.39)	3.51(.43)	3.45(.42)
	여	3.50(.41)	3.41(.46)	3.44(.44)
	전체	3.44(.41)	3.46(.44)	3.45(.43)
학습활동능력	남	2.94(.40)	3.45(.47)	3.23(.51)
	여	3.22(.48)	3.30(.56)	3.24(.53)
	전체	3.09(.47)	3.38(.52)	3.24(.52)
학교준비도	남	3.09(.29)	3.29(.40)	3.21(.37)
	여	3.22(.35)	3.20(.46)	3.20(.40)
	전체	3.16(.33)	3.25(.42)	3.20(.38)

<표 4>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 (N=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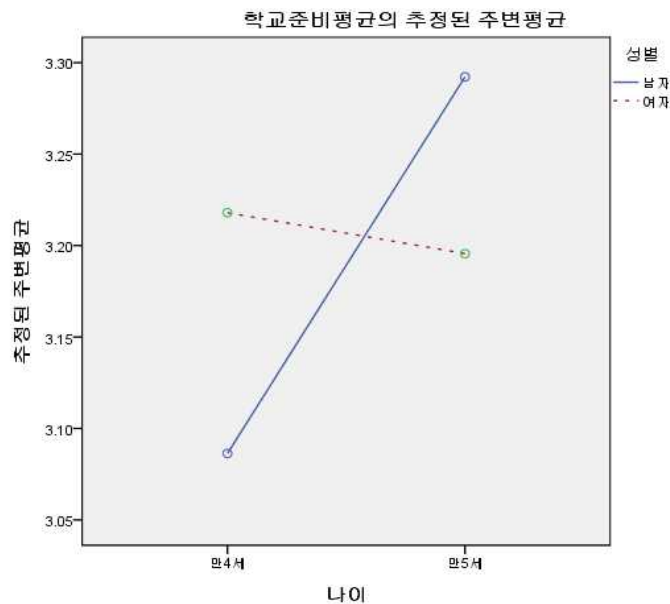
변인	변량원	df	SS	MS	F
단체생활태도	연령(A)	1	.01	.01	.05
	성별(B)	1	.00	.00	.01
	A×B	1	.18	.18	.72
	오차	180	45.87	.26	
	전체	184	1809.75		
정서교류능력	연령(A)	1	.10	.10	.57
	성별(B)	1	5.27	5.27	.00
	A×B	1	.30	.30	1.67
	오차	180	32.10	.18	
	전체	184	1754.70		
일상생활지식	연령(A)	1	.03	.03	.15
	성별(B)	1	.01	.01	.04
	A×B	1	.50	.50	2.77
	오차	180	32.53	.18	
	전체	184	2226.83		
학습활동능력	연령(A)	1	3.97	3.97	16.86***
	성별(B)	1	.22	.22	.92
	A×B	1	2.12	2.12	9.03**
	오차	180	42.33	.24	
	전체	184	19990.18		
학교준비도	연령(A)	1	.38	.38	2.64
	전체	성별(B)	1	.01	.01

A×B	1	.59	.59	4.09*
오차	180	26.04	.15	
전체	184	1918.12		

\*  $p < .05$ , \*\*  $p < .01$ , \*\*\*  $p < .001$

아동의 학교준비도 전체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연령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만 4세 집단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나, 만 5세 집단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에는 만 4세 남아에 비해 만 5세 남아의 학교준비도가 높았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만 4세 여아가 만 5세 여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교준비도 총점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단순 주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6>). 학교준비도 총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 4세 아동 집단과 만 5세 아동 집단 모두에서 남아와 여아 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만 4세와 만 5세 아동 간 유의한 차이( $t = -2.9, p < .01$ )가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만 4세와 만 5세 아동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그림 1>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표 5> 학교준비도 총점에 대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성별의 단순 주 효과 검증 (N=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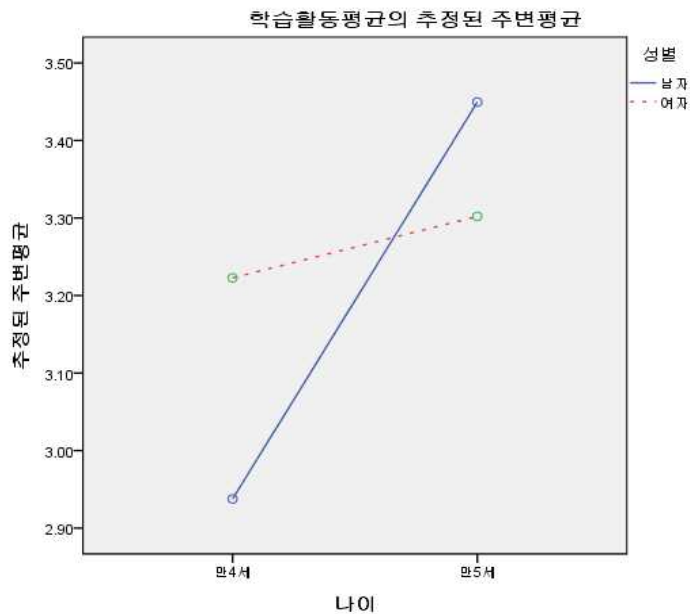
	남아	여아	t
	M(SD)	M(SD)	
만 4세	3.09(.29)	3.22(.35)	-1.8
만 5세	3.29(.40)	3.20(.46)	.59

<표 6> 학교준비도 총점에 대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연령의 단순 주 효과 검증 (N=184)

	만 4세	만 5세	t
	M(SD)	M(SD)	
남아	3.09(.29)	3.29(.40)	-2.9*
여아	3.22(.35)	3.20(.46)	.27

\*p<.01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 중 학습활동능력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2>와 같다. 학습활동능력에 대해 연령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만 4세 집단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나, 만 5세 집단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에는 만 4세 남아에 비해 만 5세 남아의 학습활동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에도 만 4세 여아에 비해 만 5세 여아의 학습활동능력이 약간 높았으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2> 아동의 학습활동능력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학습활동능력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단순 주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학교준비도의 하위 요인 중 학습활동능력 요인에서 연령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만 4세 아동 집단에서 남아와 여아 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t=-2.9,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5세 아동 집단의 경우 남아와 여아 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만 4세와 만 5세 아동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t=-5.44, p<.001$ ), 여아의 경우 만 4세와 만 5세 아동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학습활동능력에 대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성별의 단순 주 효과 검증 (N=184)

	남아	여아	t
	M(SD)	M(SD)	
만 4세	2.94(.40)	3.22(.48)	-2.9*
만 5세	3.45(.47)	3.30(.56)	.19

\* $p<.01$

<표 8> 학습활동능력에 대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연령의 단순 주 효과 검증 (N=184)

	만 4세	만 5세	t
	M(SD)	M(SD)	
남아	2.94(.40)	3.45(.47)	-5.44*
여아	3.22(.48)	3.30(.56)	-.73

\* $p<.001$

### 3.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 비교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은 드림스타트 참여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드림스타트 참여 저소득가정 아동, 드림스타트 비참여 저소득가정 아동, 일반가정 아동 3집단으로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9>). 분석결과, 세 집단 사이에 학교준비도의 총점( $F=12.25, p<.001$ )을 비롯한 단체생활태도( $F=4.91, p<.01$ )와 정서교류능력( $F=8.22, p<.001$ ) 그리고 일상생활지식( $F=17.38, p<.001$ )과 학습활동능력( $F=8.48, p<.001$ )의 하위요인까지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해서 알아본 집단 간의 차이는 단체생활태도 변인을 제외하고는 드림스타트 참여 및 비참여 저소득가정 아동 집단과 일반가정 아동집단에서 나타났다. 단체생활태도는 드림스타트 참여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평균이 저소득가정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의 학교준비도 비교 (N=184)

학교준비도	드림스타트 참여 저소득가정 아동 (n=63)	드림스타트 비참여 저소득가정 아동 (n=41)	일반가정 아동 (n=80)	F	사후 검증
	M(SD)	M(SD)	M(SD)		
단체생활태도	2.97(.47)	3.04(.53)	3.22(.49)	4.91*	c > a
정서교류능력	3.02(.41)	2.87(.46)	3.18(.37)	8.22**	c > a, b
일상생활지식	3.27(.44)	3.33(.41)	3.64(.34)	17.38**	c > a, b
학습활동능력	3.18(.47)	3.02(.61)	3.40(.45)	8.48**	c > a, b
전체	3.11(.39)	3.05(.41)	3.35(.31)	12.25**	c > a, b

\*  $p < .01$ , \*\*  $p < .001$

a: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 b: 드림스타트 비참여 저소득가정 아동, c: 일반가정 아동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아동은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과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취학 전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준비도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하위영역별로는 일상생활지식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학습활동능력,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의 순으로 낮았다. 이는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박연정(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살펴본 석지연(2012)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지식이 가장 높았고 정서교류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통해 취학 전 아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이나 학습적인 영역에서의 학업능력

등의 인지적 특성은 높으나, 단체생활과 정서교류 등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의 학교준비에 있어서 학습에 중점을 두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 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부모의 신념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적 신념은 아동의 학업 성적 및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후, 김정란, 유운영, 2011; Piotrkowski, Botsko, & Matthews, 2001).

둘째,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습활동능력 하위요인에서는 연령의 주 효과와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학교준비도 총점에서는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먼저 주 효과가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만 5세 아동들이 만 4세 아동들보다 학습활동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연령별 차이는 남아 집단에서만 있었으며, 여아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습활동능력은 글을 읽고 쓰는 것과 관련된 문해 능력, 타인의 말을 듣고 바르게 전달하는 의사소통능력, 모양을 그리고 오리는 소근육 운동능력과 같은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남아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학습활동에 있어서의 이러한 연령의 차이는 성숙과 학습 환경에 노출된 경험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만 5세 아동이 만 4세 아동에 비해 발달적인 차원에서 보다 성숙할 뿐만 아니라, 취학 직전 연령이어서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학교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인지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게 되는데, 인지 발달은 학습활동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활동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준비도 점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계숙, 1986; 조성연, 2002; 하미애, 2008; McBryde, Ziviani, & Cuskelly, 2004; Rebecca & Ximena, 2012). 학교준비도 수준은 연령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령에서도 월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지연(2012)의 연구에 의하면, 1~3월생, 4~6월생, 7~9월생, 10~12월생 순으로 월령이 높아질수록 학교준비도가 높았으며 박연정(2007)의 연구에서도 월령에 따라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월령이 빠른 아동일수록 학습기회를 보다 먼저 접하기 때문에 월령이 늦은 아동에 비해 인지수준이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박연정, 2007).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별로 보면, 남아 집단과는 달리, 여아들은 연령이 높아져도 학교준비도 점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성별로 보았을 때, 만 4세 집단에서는 남녀 아동 간에 학교준비도

의 하위영역 중 학습활동능력에서 점수의 차이를 보였으나 만 5세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표 1>에 제시한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의 아동의 분포를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4세 여아 집단에는 일반가정과 저소득가정 가정의 아동이 각각 27명, 19명이었으나 만 5세 집단에서는 10명, 38명으로 저소득가정 아동이 훨씬 더 많았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비율이 연령과 성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박연정과 정옥분(2010)의 연구에서는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을 포함한 학교준비도 전 영역에서 여아가 우수하였으며, 임정진 등(2012)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지현과 박혜원(2010)의 연구와 조성연(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학교준비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준비도 수준에서 역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도미진, 김주후, 2011; 정혜영, 2010).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에 상반된 결과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준비도의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를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 차이를 비교해 보았으며, 저소득가정 아동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과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가정 아동들이 드림스타트 참여 유무와 관계없이 저소득가정 아동들보다 학교준비도가 높았다. 드림스타트 참여 저소득가정 아동이 비참여 저소득가정 아동보다 학교준비도의 평균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학교준비도 수준이 낮은 경향은 여러 국외 연구(Rachel & Kimberly, 2012; Forget-Dubois, Dionne, Lemelin, Perusse, Tremblay, & Boivin, 2009)와 국내 연구(모화숙, 2001)와도 일치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유아들의 수 과학 발달 수준이 낮은 것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김명순, 김창복, 이미화, 2002). 이 같은 차이는 저소득가정 부모 대부분이 비정규직 위주의 취업과 장시간을 요하는 근로조건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할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어효은, 2001). 이와 같은 가능성 뿐 아니라 저소득가정 부모들이 일반가정 부모에 비해 아동의 학교준비에 대해 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놀이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준비에 필요한 언어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준비도가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석지연, 2012; 임정진 등, 2012). 이는 학교준비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관련 지원이 요구되며, 저소득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과 동등한 출발선 상에서 학교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환경 조성은 물론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드림스타트 참여 유무에 따라 학교준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드림스타트의 제반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소집단이나 일대일 형식의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주 1회에 한 시간 이내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준비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나원(2011)은 아동의 신체 및 인지 그리고 정서적인 차원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서는 연령별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시기인데, 드림스타트의 제한된 프로그램과 교육 시간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연령별 특성에 부합되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만 5세 아동들 대상으로는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초등연계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표집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연구대상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점들로 인해 생긴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드림스타트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이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저소득가정 아동만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아동의 성별과 연령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기관과 교사 변인도 동시에 고려하여 조사한다면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준비도와 초등학교에서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도와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종단연구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비교해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가정 아동을 드림스타트 참여 유무로 구분해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학교준비도 차이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가 이들 가정의 취학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공나원 (2011).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대경 (2013. 02. 13). “학교는 즐거운 곳”... 흥미·자신감 키워 주세요. 서울경제.
- 김경희,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12-26.
- 김극명 (2011).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덕선 (2012). 만 5세 유아의 가정 문해 환경과 학습 준비도와와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순, 김창복, 이미화 (2002).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과 놀이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1), 87-104.
- 김명철, 이혜진. (2012. 11. 15). “[의왕 영유아 체험학습] 가는 곳마다 생생한 생태 교육.” 중부일보.
- 김선화 (2010). 드림스타트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미 (2007).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관리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아동교육**, 16(2), 17-30.
- 김윤수 (2003).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준비도 요소 추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후, 김경란, 유윤영 (2011). 조기 교육 실시에 따른 취학 전 유아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의 신념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5(1), 99-116.
- 김진이 (2009). 경제적 압박감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위험변인과 부정적 부모역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8, 8-43.
- 김향숙 (2001).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미진, 김주후 (2011). 다문화 가정 유아의 학교 준비도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이의 관계. **한**

**국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15(3), 31-48.**

- 모화숙 (2011).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간의 학업 성취에 대한 지능, 정서지능, 성격 5인의 상대적 예측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희, 이형초, 이정윤, (2007).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7(2), 17-36.**
- 박연정 (2008).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개발 및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연정, 정옥분 (2010).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7(3), 37-54.**
- 방소영, 최선희, 이수현, 황혜정 (2013).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적 · 행동적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비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157-179.**
- 백선희 (2006). 영국의 국가아동보육전략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 Sure Star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7(12), 79-113.**
- 석지연 (2012).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영, 장영은, 이강이, 손승희 (2009). 양육신념, 부모협력 및 가정학습환경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1-29.**
- 안지연 (2003). 저소득층 학령전기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효은 (2001). 도시빈민지역 아동의 공부방 경험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상경 (2010). 초등학교 준비도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현경, 권혜진 (2010). 만5세 유아, 부모, 교사가 가진 학교준비도의 개념과 취약유예의 경험의 의미. **한국아동치료심리학회지, 5(1), 23-50.**
- 원희정 (2006).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이정윤 (2007). 초등학교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 이경현 (2012).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이윤진, 이정림 (2009).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순옥 (2010). 저소득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 연구.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희 (2006). 저소득층 가정환경과 영아의 언어발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1985). 아동의 수개념 발달과 학습준비도 및 지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정선아, 이명조 (2003).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 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85-118.
- 이 훈 (2007).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 홍성군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병철 (2009). 저소득 아동의 통합서비스체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진, 김유정, 조수원, 안선희 (2012). 유아와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 및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에 따른 유아의 학교준비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295-319.
- 정계숙 (1986).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일 연구. **교사교육연구**, 13, 109-127.
- 정영숙, 이상복, 정보인, 홍강의 (2000). 발달장애 발생요인의 예측과 장애아동의 복지모형개발연구 : 위험요인차원 및 유형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 연구**, 16(2), 1-30.
- 정현영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중 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2003). 중학교 진학 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1(2), 36-46.
- 정혜영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2002).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03-111.
- 조희숙 (2005).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 정대현, 정효은, 안지송, 박은영 (2006). 유아의 초등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학부모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227-249.
- 천희영 (2001).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원형, 헤드스타트. **아동연구**, 10, 16-31.
- 최지현, 박혜원 (2010).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13-124.
- 하미애(2008). 유아의 지능, 언어능력 및 학습준비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ya, A., & Adam, W. (2012). School readiness among low-income, Latino children attending family childcare versus center-based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Care*, 182(11), 1465-1485.

- Blair, C. (2002). School readiness: Integrating cognition and emotion in a neurobi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entry. *American Psychologist*, 57(2), 111-127.
- Bowman, B. (2006).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B. Bowman & E. K. Moore (Eds.),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on cultural diversity*. National Black Child Development Institute, Inc.
- Burgess, C. S. (2005). *The evaluation of a multi-component early intervention strategy on school readiness levels*. Doctoral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 Duncan, G. J., Dowsett, C. J., Claessens, A., Magnuson, K., Huston, A. C., & Klebanov, P. (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28-1446.
- Forget-Dubois, N., Dionne, G., Lemelin, J., Perusse, D., Tremblay, R. E., & Boivin, M. (2009). Early child language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Child Development*, 80(3), 736-749.
- Luster, T., & Bates, L., & Fitzgerald, H., & Vandenberg, M., & Key, J. P. (2000). Factors related to successful outcomes among preschool children born to low-income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133-146.
- McBryde, C., Ziviani, J., & Cuskelly, M. (2004). School readiness and factors that influence decision making.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11(4), 193-208.
- Moss, P. (2006). Farewell to childcare?.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95, 70-83.
- Rachel, A. Razza., & Kimberly, R. (2012). Associations among maternal behavior, delay of gratification, and school readiness across the early childhood years. *Social Development*, 22(1), 180-196.
- Rebecca J. Bulotsky-Shearer., & Ximena, D. (2012). Preschool classroom behavioral context and school readiness outcomes for low-income children: A multilevel examination of child- and classroom-level influ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2), 421-438.
- Piotrkowski, C. S., Botsko, M., & Matthews, E. (2001). Parent's and teacher's beliefs about children's school readiness in a high-need commun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4), 537-558.
- Pyatskowitz, R. (2009). Early Head Start/ Head Start evaluation, program practices, staff/teacher training and policy trends in US, 위스타트 국제학술대회 5회.
-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4.

- Spencer, M. S., Kalil, A., Larson, N. C., Spieker, S. J., & Gilchrist, L. D. (2002). Multigenerational coresidence and childrearing conflict: Links to parenting stress in teenage mothers across the first two years postpartum.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3), 157-170.
- Stewart, R. A., Rule, A. C., & Giordano, D. A. (2007). The effect of fine motor skill activities on kindergarten student atten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5*(2), 103-109.
- Winsler, A., Tran, H., Hartman, S. C., Madigan, A. L., Manfra, L., & Bleiker, C. (2008). School readiness gains made by ethnically diverse children in poverty attending center based childcare and public school pre-k progra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314-329.
- Zill, N., & West, J. (2001). *Entering Kindergarten: A portrait of American children when they begin school*. Finding from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chool readiness between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and children in non-low-income families. In particular, it examined the influence of family's income levels child's age and gender upon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subjects were 184 children that were 4~5 yea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using t-tests, one-way ANOVA, two-way ANOVA, and Scheffe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chool readiness of children from non-low-income families's was higher than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 school readiness was explained significantly by the interaction effect of children's age and gender.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children's school readiness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in Dream Star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level of income is the key factor in differences of children's school readiness. Finally,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of low-income children and development of effective Dream Start programs was discussed.

▶ *Key Words* : *low-income family, school readiness, Dream Start*

논문투고	2013. 06. 24.
수정원고접수	2013. 12. 06.
최종게재결정	2013. 12. 22.